

勞 動 經 濟 論 集  
 第39卷 第2號, 2016. 3. pp.53~81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취업상태에서의 직장탐색이 보다 효과적이었을까?\*

남 기 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탐색 노력 정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을 더 낮춤으로써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은 더 낮았으며,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았다.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직장탐색, 취업 확률, 유보임금

논문 접수일: 2016년 4월 19일, 논문 수정일: 2016년 6월 8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9일

\* 본 논문의 초고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패널조사 포럼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월례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승렬 박사님, 신종각 박사님, 김혜원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nkgon@hanbat.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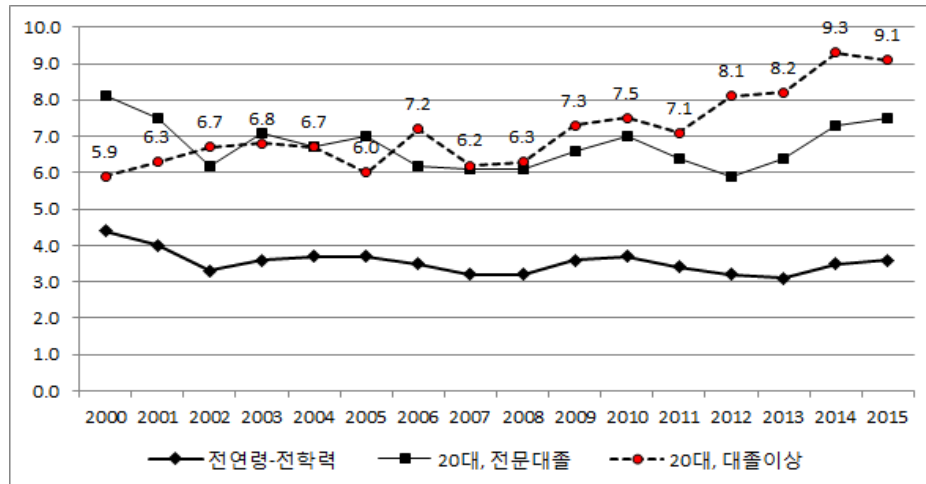
## I. 문제 제기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취업상의 애로를 겪곤 한다. 정보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잘 찾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취업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된 사회에서는 대학졸업자들의 공급은 급증하는 반면, 예전에 대학졸업자들이 담당하였던 일자리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다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전체 실업률은 3-4% 수준인 반면, 20대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은 6-7% 이상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문대 졸업자보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 증가 추세가 보다 가속화되어, 거의 10% 수준에 가까워질 정도로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들은 초기 단계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미취업 상태에서 일자리 탐색에 전념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취업 탐색), 일단 취업을 한 상태에서 탐색 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 탐색) 그렇다면 이처럼 취업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었을까? 취업 탐색은 직장탐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탐색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좋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다. 따라서 취업 탐색과 미취업 탐색 중 어느 전략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해 엇갈린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Mattila(1969)와 Black(1980), Blau and Robins(1990) 등은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임금 제안(wage offers) 수준을 높이거나 직장을 얻는 확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Kahn and Low(1982)는 취업-미취업에 대한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를 고려하면, 오히려 미취업 탐색의 경우 임금 제안 수준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Gottschalk and Maloney(1985)는 취업 탐색 여부 그 자체가 새로

[그림 1] 20대 대학졸업자 실업률의 시계열 추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운 직장의 수준이 더 좋아지는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Holzer(1987)의 연구에서는 미취업 탐색이 취업 탐색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확률은 증가시키지만, 임금은 더 낮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만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Chuang(1995)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석 결과가 보고되었다.<sup>1)</sup>

이러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취업 탐색과 미취업 탐색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에 질적인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미취업 탐색보다는 취업 탐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두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 상의 차이는 취업 탐색 여부 외에도 이와 같은 인적 구성상의 차별성에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적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취업 탐색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노동시장

1) 국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어떠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수의 분석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대일, 2004; 김용성, 2008). 청년층의 유보임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김안국, 2003; 오호영, 2012; 이병희, 2011). 하지만 본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는 찾기 어렵다.

성과를 추적하고자 한다. 자료의 특성상 동일한 연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동질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관측 가능한 개인의 다양한 인적속성은 물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나타내주는 대학졸업 당시 유보임금 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 자료를 이용한 이와 같은 분석 방식은 취업 탐색 전략의 인과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이론 모델을 소개하고, 제Ⅲ장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분석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에 탐색노력의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새로운 직장에 대한 취업 여부와 노동조건이 두 집단 간에 서로 다른지, 그리고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에 대한 취업 여부와 노동조건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취업 탐색을 선택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논문의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한다.

## Ⅱ. 이론적 검토

전통적인 직장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 따르면, 주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탐색노력(search effort)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의 식은 이러한 관련성을 보여준다.<sup>2)</sup>

$$P^{New} = \pi(SE) [1 - F(w^r)] \quad (1)$$

여기서  $P^{New}$  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을 나타내며,  $w^r$  은 유보임금을,  $SE$  는 탐색노력을, 그리고  $\pi$  는 직장 제의를 받을 확률분포함수를 나타낸다.  $f(w^0)$  는 개인이 직면한 임금 제안들(wage offers)의 밀도함수(density function)를, 그리고  $F(w^0)$  는 이에 대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의미한다.<sup>3)</sup> 이 경우 새로

2) 새로운 직장의 탐색 결과에 대한 이론 모델은 Holzer(1987)의 설명을 원용하였다.

직장을 얻는 개인의 기대임금은 다음의 식과 같이 그의 유보임금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E(w^{New} | w^0 \geq w^r) = \frac{\int_{w^r}^{\infty} wf(w)dw}{\int_{w^r}^{\infty} f(w)dw} \quad (2)$$

취업한 상태에서 탐색을 하는 사람과 미취업 상태에서 탐색을 하는 사람 사이에는 탐색 성과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두 집단 사이에  $\pi$  나  $f(w^0)$  함수는 물론 유보임금  $w^r$  와 탐색노력  $SE$  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탐색비용이 낮을수록 유보임금은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탐색비용에는 탐색 과정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과 더불어 탐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실소득(foregone earnings)이 포함된다. 취업자는 탐색 과정에서도 소득을 벌기 때문에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탐색비용이 낮고, 이로 인해 유보임금은 높아지게 된다. 높은 유보임금은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취업자는 낮은 탐색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탐색노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한계가치가 높기 때문에 탐색노력은 더욱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요인 역시 취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낮은 수준에 머물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실은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탐색노력이 적고 유보임금이 높으며,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  $P_{employed}^{New}$  는 미취업 탐색자가 새로운 직장을 얻을 확률  $P_{unemployed}^{New}$  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일 것임을 시사해준다. 반면 새로운 직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유보임금이 높았던 취업 탐색자의 실제 기대임금 수준  $E(w_{employed}^{New})$  는 미취업 탐색자의 기대임금 수준  $E(w_{unemployed}^{New})$  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취업 탐색자는 실업 상태에서 직장탐색을 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새로운 직장을 얻을 확률과 그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취업

3) 여기서는 모델의 단순화를 위해 여러 가정들이 전제되어 있다. 주어진 기간에 하나의 직장 제안을 받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고, 탐색노력은 직장 제의를 받는 확률에만 영향을 미칠 뿐 개인의 임금 제안 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탐색자의 경우 최종적인 노동시장 성과는 새로운 직장에 관한 정보만으로 판별될 수는 없다. 최종 시점에서 이들의 취업 확률에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 외에도,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종사하고 있을 확률까지가 더해져야 한다. 최종 시점에서 임금수준 역시 후자 그룹의 임금수준까지가 함께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 시점에서 취업 탐색자의 고용 확률과 기대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P_{employed}^{Final} = \alpha (1 - P_{employed}^{New}) + P_{employed}^{New} \quad (3)$$

$$E(w_{employed}^{Final}) = E(w_{employed}^{Present}) \left[ \frac{\alpha (1 - P_{employed}^{New})}{P_{employed}^{Final}} \right] + E(w_{employed}^{New}) \left[ \frac{P_{employed}^{New}}{P_{employed}^{Final}} \right] \quad (4)$$

식에서  $\alpha$  는 새로운 직장을 얻지 못한 취업 탐색자 중 원래의 직장에 계속 종사할 확률을 나타낸다. 이 값은 항상 플러스이므로 취업 탐색자의 경우  $P_{employed}^{Final}$  는  $P_{employed}^{New}$  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은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낮더라도, 최종적인 취업 확률은 어떤 집단이 더 높을지는 불확실하다.

임금수준의 경우 취업 탐색자 중 기존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의 기대임금 수준  $E(w_{employed}^{Present})$  과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한 사람의 임금수준  $E(w_{employed}^{New})$  가운데 어느 경우가 보다 높은 값을 가질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기존의 직장에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한 사람의 임금수준이 현재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의 임금수준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장의 이동 과정에서 근속연수 감소로 인적자본축적이 지체되고,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새로운 직장의 임금수준이 현재 직장의 임금수준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값의 가중평균 값인 전체 직장에 대한 기대임금 수준  $E(w_{employed}^{Final})$  이 새로운 직장에서의 기대임금 수준  $E(w_{employed}^{New})$  보다 더 높을지 여부는 불확정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직장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유보임금 수준이 높

있던 취업 탐색자의 임금수준  $E(w_{employed}^{New})$ 이 미취업 탐색자의 임금수준  $E(w_{unemployed}^{New})$ 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하여  $E(w_{employed}^{Present})$  값까지가 합해질 경우  $E(w_{employed}^{Final})$ 이  $E(w_{unemployed}^{New})$ 에 비해 더 높을지는 이론적으로 확정되기 어렵다. 결국 이는 실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Ⅲ. 자료 및 분석 방식

#### 1. 자료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분석한다. 이는 2-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일반 대학을 직전 연도에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황 및 인적속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자료다. 2005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2006년도에 실시된 이후, 매년 동일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0년에 실시된 1차 조사와(2009GOMS1), 2년 뒤인 2012년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실시된 2차 조사 결과(2009GOMS3)를 함께 이용한다.<sup>4)</sup>

이 논문의 핵심 분석대상은 2009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0년도 9월 현재 직장을 탐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 탐색자’ 집단과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탐색자’로 구분된다.<sup>5)</sup> 본 논문은 이 두 집단 간의 차별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있다. 우선 두 집단 간에 직장탐색 활동 정도의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위해 소요한 시간과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하는 횟수, 그리고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보임금 수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상의 차별성을 살펴보기

4) 2008년 8월 졸업자와 2009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5) 두 집단의 구분은 1차 조사에서 ‘현재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해 1차 조사 이후 다시 2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된 2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여부와 임금수준에 대해 분석한다.

1차 조사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8,011명의 표본 중 1,960명이었다.<sup>6)</sup> 여기서는 두 집단 간 표본 구성을 동질화시키기 위해 1차 조사 당시 연령이 32세 이상인 사람, 1차 조사 당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 표본은 1,751명으로 감소하였다.

취업 탐색인지 아니면 미취업 탐색인지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 간의 이질적인 특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다 우수한 인적자본을 가진 근로자일수록 이 두 집단 중 취업 탐색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내리기 어렵게 된다. 취업 탐색과 미취업 탐색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실증분석에서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회귀분석 방식을 통해 관측 가능한 개인의 다양한 인적속성을 통제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대학졸업 당시 개인의 유보임금 수준을 회귀분석의 통제변수로 추가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1차 조사 자료에서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취업을 통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소득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임금 수준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대리변수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에서는 이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동일한 유보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 시기에 취업 탐색을 한 집단과 미취업 탐색을 한 집단 간에, 2년 후 노동시장 성과 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대상 표본 중 유보임금 수준에 대한 무응답자 16명을 제외한 1,735명이 본 논문의 최종적인 분석대상이다.<sup>7)</sup> 이 중 취업 탐색자는 849명이고 미취업 탐색자는 886명이다.

6) 1차 조사 당시 전체 표본 18,011명 중 취업자는 13,433명으로 고용률은 74.6%였다.

7)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유보임금이나 실제 임금 변수에 대해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변수의 값이 상하 0.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상치(*outlier*)로 보고 무응답 처리하였다.



## 2. 기술통계

이상의 방식으로 분류된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에 어떠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표 1>은 각 집단별로 대학졸업 직전의 유보임금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유보임금 수준은 취업 탐색자의 경우 2,461만 원으로 미취업 탐색자 2,429만 원보다 32만 원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2]에 제시된 두 집단 간 유보임금의 분포를 보면, 취업 탐색자 집단이 미취업 탐색자 집단에 비해 2,000만 원 중반 대의 유보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2,000만 원을 전후로 하는 유보임금 비율은, 취업 탐색자의 경우가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임금 대에서는 두 집단 간 유보임금 분포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 대학졸업 직전 유보임금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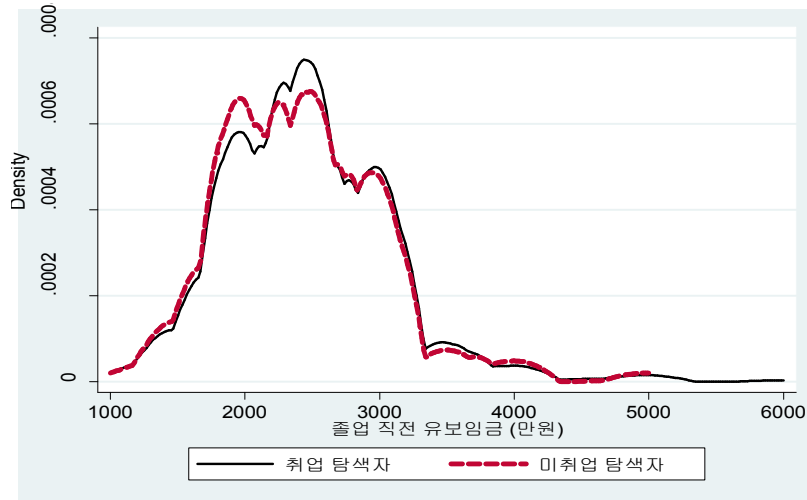
(단위: 만 원, 명)

	취업 탐색자	미취업 탐색자	
대학 졸업 직전 유보임금	2,461.4	2,429.2	t=1.1122 [p=0.2662]
표본 수	849	886	

다음 <표 2>는 본 논문의 회귀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해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남자의 비율, 연령, 일반 대학 졸업 여부, 후기 졸업자 비율, 전공계열 분포, 그리고 기혼 여부 등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았다.<sup>8)</sup> 반면 졸업한 대학의 지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서울-경기권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경상-전라권 대졸자는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는 않지만, 취업 탐색자 집단은 주간 학생의 비율이 보다 낮고,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평점은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세한 수준이지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토익 성적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8)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에서는 개인의 학교 유형을 ① 2-3년제 대학, ② 4년제 대학, ③ 교육대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②와 ③을 ‘일반 대학’으로 정의한다.

[그림 2]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 대학졸업 직전 유보임금의 분포



〈표 2〉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 인적속성 및 대학특성 비교

(단위: %, 세, 점, 년, 명)

	취업 탐색자	미취업 탐색자	
남자	48.5	51.2	$\chi(1)=1.2773$ [p=0.258]
연령 (세)	26.1	26.0	$t=0.8390$ [p=0.4016]
일반 대학 졸업	65.6	64.2	$\chi(1)=0.3653$ [p=0.546]
후기(2008년 8월) 졸업	15.0	16.6	$\chi(1)=0.8690$ [p=0.351]
주간	88.9	91.4	$\chi(1)=3.0511$ [p=0.081]
전공계열			$\chi(6)=8.8919$ [p=0.180]
인문계열	11.7	13.2	
사회계열	25.7	28.4	
교육계열	6.1	4.2	
공학계열	23.6	22.8	
자연계열	12.6	12.8	
의약계열	4.8	3.0	
예체능계열	15.5	15.6	
학교주소			$\chi(4)=18.7010$ [p=0.001]
서울권	21.9	20.5	
경기권	37.3	30.1	
충청권	15.3	15.5	
경상권	17.2	21.2	
전라권	8.2	12.6	
졸업 평점 (점)	3.69	3.62	$t=3.2997$ [p=0.0010]
토의 성적 (점)	735.9	744.5	$t=-0.6749$ [p=0.5001]
기혼	3.4	2.9	$\chi(1)=0.3271$ [p=0.567]
아버지 교육연수 (년)	12.5	12.3	$t=1.7564$ [p=0.0792]
표본 수 (명)	849	886	

주 : 졸업 평점, 토의 성적, 아버지의 교육연수의 경우 무응답인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한 값임.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변수들을 통제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에 취업 노력의 측면과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 IV. 분석 결과

### 1. 탐색노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탐색이론의 모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탐색비용이 낮은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탐색노력이 적고 유보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Holzer(1987)나 Chuang(1995) 등의 외국 실증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은 확인되는데, 동일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한국의 청년층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표 3>은 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집단의 직장탐색 활동 정도 및 1차 조사 시 유보임금 수준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sup>9)</sup> 표에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구직활동을 위한 주당 평균 소요시간이 짧고,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지원 횟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의 직장탐색 노력이 보다 활발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2010년 1차 조사 시 유보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직전 유보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그 변화 정도를 추적해 보면, 취업 탐색자의 경우 유보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 탐색자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유보임금이 100만 원 이상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자 집단에서든 여자 집단에서든 미취업 탐색자는 취업 탐색자에 비해 탐색시간도 길고, 지원횟수도 많으며, 유보임금의 하락 폭도 더 컸다. 모든 경우 두 집단 간에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9) 1차 조사 시 유보임금에 대한 자료는 직장탐색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자리에서의 수입은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본 설문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다.

〈표 3〉 탐색노력 및 유보임금 수준 비교

(단위: 시간, 회, 만원, 명)

		취업 탐색자	미취업 탐색자	
구직활동	<탐색시간> 구직활동 위한 주당 평균 소요시간	5.92	8.65	t=-6.2759 [p=0.0000]
	<지원횟수>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지원횟수	4.34	10.86	t=-9.2733 [p=0.0000]
전체	<1차 조사 시 유보임금>	2,483.3	2,317.5	t=5.8749 [p=0.0000]
	<유보임금의 변화> 1차 조사 시 - 대학 졸업 직전	24.8	-111.6	t=5.6711 [p=0.0000]
	표본 수 (<탐색시간> 의 경우)	844	881	
구직활동	<탐색시간> 구직활동 위한 주당 평균 소요시간	5.69	9.04	t=-5.4100 [p=0.0000]
	<지원횟수>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지원횟수	5.27	12.80	t=-6.3645 [p=0.0000]
남자	<1차 조사 시 유보임금>	2,623.1	2,419.5	t=5.0707 [p=0.0000]
	<유보임금의 변화> 1차 조사 시 - 대학 졸업 직전	80.7	-109.1	t=5.2498 [p=0.0000]
	표본 수 (<탐색시간>의 경우)	409	452	
구직활동	<탐색시간> 구직활동 위한 주당 평균 소요시간	6.14	8.24	t=-3.4410 [p=0.0006]
	<지원횟수>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지원횟수	3.46	8.82	t=-7.1573 [p=0.0000]
여자	<1차 조사 시 유보임금>	2,352.2	2,210.1	t=3.7369 [p=0.0002]
	<유보임금의 변화> 1차 조사 시 - 대학졸업 직전	-27.7	-114.1	t=2.7372 [p=0.0063]
	표본 수 (<탐색시간>의 경우)	435	429	

이러한 사실은 대학졸업 직전의 유보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된다.<sup>10)</sup> <표 4>를 보면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

<표 4> 탐색 노력 및 유보임금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탐색시간	Model (2) 지원횟수	Model (3) LN(1차조사 유보임금)	
전체	취업 탐색	-2.810*** (0.450)	-6.549*** (0.708)	0.048*** (0.009)
	LN(유보임금)	-0.504 (1.215)	-1.278 (1.500)	0.558*** (0.026)
	관측치 수	1,725	1,733	1,730
	R <sup>2</sup>	0.0540	0.1176	0.5088
남자	취업 탐색	-3.376*** (0.654)	-7.022*** (1.211)	0.062*** (0.013)
	LN(유보임금)	-0.554 (2.126)	-2.112 (2.785)	0.523*** (0.037)
	관측치 수	861	866	863
	R <sup>2</sup>	0.0742	0.1475	0.4711
여자	취업 탐색	-2.100*** (0.667)	-6.289*** (0.821)	0.034*** (0.012)
	LN(유보임금)	-0.552 (1.377)	-0.786 (1.481)	0.588*** (0.035)
	관측치 수	864	867	867
	R <sup>2</sup>	0.0704	0.1200	0.5272

주 :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전체>의 경우 자세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 1> 참조.

에 비해 주당 구직활동 시간은 2.8시간 더 적고, 일자리 지원횟수는 6.5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 직전 유보임금을 통제하더라도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1차 조사 시 유보임금이 4.8% 더 높는데, 이는 그만큼 취업 탐색자의 유보임금 변화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더 적었음을 의미한다. 남자와 여자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일관되게 확인되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취업 탐색 여부의 효과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10) 본 논문의 회귀분석에서는 <표 2>에서 제시된 변수들 외에도, 지역 간 노동시장 여건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1차 조사 당시의 거주지 시도에 대한 더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졸업 평점과 토익 성적, 아버지의 교육연수에 대한 변수는 무응답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0의 값으로 대체하고 각 변수가 무응답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회귀식에 추가로 통제하였다.

비해 주당 구직활동 시간이 3.4시간 적고, 일자리 지원횟수도 7.0회 적으며, 유보임금은 6.2% 높았다.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주당 구직활동 시간이 2.1시간 적고, 일자리 지원횟수는 6.3회 적었다. 유보임금은 3.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이상의 분석 결과는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 수준도 더 낮아져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탐색이론의 예상이, 한국의 대졸 청년층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노동시장 성과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탐색 노력이 적고 유보임금이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면, 일정 기간 이후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이 낮은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는 1차 조사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2012년 시점의 2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다음 <표 5>는 1차 조사 당시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가 2차 조사에서 새로운 직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이 20%포인트 가깝게 더 낮은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200만 원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게 확인된다.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확률이 남자의 경우 15.4%포인트, 여자의 경우 21.4%포인트 더 낮았다. 반면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남자는 291만 원, 여자는 110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취업 탐색자 집단과 미취업 탐색자 집단 간의 탐색시간과 지원횟수의 차이에 대한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는 앞의 <표 3>에 제시된 두 집단 간 관련 변수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뒤의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익명의 한 심사자가 잘 지적했듯이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부표 1> 참조). 본 논문의 회귀분석에서는 주로 개인의 인적자본량과 관련된 변수들이 통제되었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탐색 노력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 비교 (새로운 직장)

(단위: %, 만원, 명)

	취업 탐색자	미취업 탐색자		
전체	취업 여부	58.8	77.3	$\chi(1)=54.7758$ [p=0.000]
	임금	2,482.0	2,287.7	t=3.3742 [p=0.0008]
	표본 수 (‘임금’의 경우)	714 (415)	687 (519)	
남자	취업 여부	61.9	77.3	$\chi(1)=20.1773$ [p=0.000]
	임금	2,769.9	2,479.3	t=3.3692 [p=0.0008]
	표본 수 (‘임금’의 경우)	349 (212)	366 (275)	
여자	취업 여부	55.9	77.3	$\chi(1)=34.6978$ [p=0.000]
	임금	2,181.4	2,071.7	t=1.6286 [p=0.1041]
	표본 수 (‘임금’의 경우)	365 (203)	321 (244)	

주 : 표본 수 행의 괄호 안의 수치는 임금 변수에 대한 표본 수입.

대학졸업 직전 유보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sup>12)</sup> 표를 보면, 이들 독립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을 얻을 확률이 19.1%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직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임금이 7.5% 더 높았다. 남자와 여자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을 얻을 확률이 남자의 경우 15.7%포인트, 여자의 경우 23.3%포인트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은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남자는 9.5%, 여자는 5.5% 더 높았다.<sup>13)14)</sup>

12)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지 여부는 더미변수이므로, 여기서는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BIT 분석을 실시한 후, 모든 독립변수들의 평균값 수준에서의 한계효과 값을 구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13) 여자의 경우 임금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취업 탐색 여부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43).

이상의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탐색 노력이 적은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의 취업 확률은 더 낮을 것이며, 반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유보임금을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의 노동조건이 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탐색이론의 예측이 한국의 노동시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새로운 직장)

		Model (1) 취업 여부	Model (2) 임금
전체	취업 탐색	-0.191*** (0.025)	0.075*** (0.025)
	LN(유보임금)	-0.086 (0.060)	0.225*** (0.063)
	관측치 수	1,400	934
	R <sup>2</sup>		0.2373
남자	취업 탐색	-0.157*** (0.037)	0.095*** (0.034)
	LN(유보임금)	-0.152* (0.086)	0.267*** (0.099)
	관측치 수	714	487
	R <sup>2</sup>		0.2153
여자	취업 탐색	-0.233*** (0.038)	0.055 (0.037)
	LN(유보임금)	-0.024 (0.089)	0.202** (0.085)
	관측치 수	681	447
	R <sup>2</sup>		0.2125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임금분석은 강건 표준오차).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Model (1)은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 값임. <전체>의 경우 자세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 2> 참조.

- 14) 1차 조사 시 1,735명이었던 표본이 2차 조사에서는 1,401명으로 감소하여, 334명의 표본이 탈락하였다(탈락률 19.3%). 취업 탐색자 집단의 경우 표본 탈락률은 15.9%로 미취업 탐색자 집단의 표본 탈락률 22.5%보다 다소 낮았다. 익명의 한 심사자가 잘 지적했듯이, 만약 두 집단 간 표본탈락 양상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면(예를 들어 미취업 탐색자의 집단이 취업 탐색자 집단에 비해 인적자원량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표본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면), 취업 탐색 여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여기서의 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취업 탐색자 집단과 미취업 탐색자 집단별로 2차 조사 시 표본 잔류자와 탈락자 간의 대학졸업 직전 유보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느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본탈락의 문제가 여기서의 분석 결과에 심각한 편의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장만이 아니라 2차 조사 시점에서의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노동 시장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1차 조사 당시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에 어떠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을까?

다음 <표 7>에는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두 집단 간에 노동시장 성과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가 정리되어 있다. 우선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이 10%포인트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역시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더 높아서, 250만 원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직장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은 15.0%포인트 더 높았고, 임금수준은 314.6만 원 더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은 4.6%포인트, 임금수준은 208.0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 비교 (전체 직장)

(단위: %, 만원, 명)

	취업 탐색자	미취업 탐색자	
전체	취업 여부	87.0	77.3
	임금	2,544.3	2,287.7
	표본 수 (‘임금’의 경우)	714 (614)	687 (519)
남자	취업 여부	92.3	77.3
	임금	2,793.9	2,479.3
	표본 수 (‘임금’의 경우)	349 (316)	366 (275)
여자	취업 여부	81.9	77.3
	임금	2,279.7	2,071.7
	표본 수 (‘임금’의 경우)	365 (298)	321 (244)

주 : 표본 수 행의 괄호 안의 수치는 임금 변수에 대한 표본 수임.

〈표 8〉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직장)

		Model (1) 취업 여부	Model (2) 임금
전체	취업 탐색	0.103*** (0.021)	0.077*** (0.023)
	LN(유보임금)	-0.025 (0.047)	0.300*** (0.057)
	관측치 수	1,400	1,133
	R <sup>2</sup>		0.2495
남자	취업 탐색	0.146*** (0.027)	0.074** (0.031)
	LN(유보임금)	-0.103* (0.059)	0.346*** (0.084)
	관측치 수	714	591
	R <sup>2</sup>		0.2345
여자	취업 탐색	0.039 (0.033)	0.078** (0.034)
	LN(유보임금)	0.044 (0.072)	0.269*** (0.080)
	관측치 수	681	542
	R <sup>2</sup>		0.2274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임금분석은 강건 표준오차).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Model (1)은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 값임. <전체>의 경우 자세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 2> 참조.

〈표 8〉은 이와 관련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할 때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10.3%포인트 취업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취업 탐색자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7.7% 더 높았다. 성별로도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은 14.6%포인트 더 높았고, 임금은 7.4% 높았다. 여자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은 3.9%포인트, 임금은 7.8% 더 높았다. 여자의 경우 취업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모든 지표에 있어 취업 탐색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할 때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여자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플러스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직장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취업 탐색자의 취업 확률이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더 낮았다. 하지만 취업

탐색자 중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얻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직장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하면 취업 탐색자의 최종적인 취업 확률이 미취업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임금수준 역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취업 탐색자는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7.7%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새로운 직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두 집단 간 임금격차 7.5%와 유사한 차이다. 이는 취업 탐색자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얻어 이동한 사람이나 기존 직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임금수준 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표 9>는 취업 탐색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 취업 여부가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 취업 여부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직장탐색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비해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직장을 이동한 사람은 현재의 직장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서의 평생소득이 보다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장 이동을 선택했겠지만, 지금의 초기 단계에서는 근속 단절로 인한 손해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 선택의 유리함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장을 이동할지 여부가 단순히 현재의 임금수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이외의 다양한 근로조건이나 직장 내에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 등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직장이동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 9>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널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 탐색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기존 직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비해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일자리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일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더 강했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기존 직장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탐색자 중 일부를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직장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보임금이 높은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앞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취업 탐색자 중 기존 직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한 사람에 비해, 적어도 임금수준 측면에서 본다면 더 낮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집단 임금수준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는 취업 탐색자의 최종적인 임금수준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취업 탐색자 중 새로운 직장을 얻지 못하고 기존 직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평균적인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미취업 탐색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 비해 보다 유리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 대상)

		Model (1)	Model (2)	Model (3)
		전체	남자	여자
임금수준	새로운 직장 취업	-0.018 (0.031)	0.035 (0.049)	-0.089** (0.045)
	LN(유보임금)	0.335*** (0.085)	0.367*** (0.118)	0.319** (0.126)
	관측치 수	614	316	298
	R <sup>2</sup>	0.2773	0.2626	0.2691
일(업무) 만족도	새로운 직장 취업	0.174*** (0.046)	0.331*** (0.066)	0.077 (0.070)
	LN(유보임금)	-0.053 (0.101)	-0.151 (0.158)	-0.070 (0.146)
	관측치 수	621	322	295
	새로운 직장 취업	0.091** (0.045)	0.160** (0.064)	0.036 (0.070)
일자리와 자신의 전공의 적합도	LN(유보임금)	0.154 (0.102)	-0.024 (0.163)	0.230 (0.148)
	관측치 수	616	313	293

주 :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임금 분석은 강건 표준오차).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만족도와 적합도 변수에 대한 분석은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 값임.

3) 일(업무) 만족도는 “현재 하시는 일(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일자리와 자신의 전공의 적합도는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맞는다’ 혹은 ‘매우 잘 맞는다’고 응답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V. 취업 탐색의 선택 요인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취업을 한 상태에서 탐색 활동을 하는 것이 미취업 상태에서 탐색을 하는 경우에 비해, 최종적인 취업 확률과 임금수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취업 탐색이 아닌 취업 탐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까? 앞의 <표 2>에서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집단 간 인적속성 상의 차별성을 분석한 결과, 이 두 집단이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 취업 탐색자 집단이 미취업 탐색자 집단에 비해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학의 졸업생의 비율이 높았고, 주간보다는 야간 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약간 더 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졸업 평점은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세하게 더 높은 반면, 토익 성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는 1차 조사에서 확인되는 대학재학 시 활동에 관한 정보 중 취업 탐색 여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을 보면 우선 대학재학 중 취업 및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취업 탐색보다는 취업 탐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7개의 세부 프로그램 모두 취업 탐색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통계적 유의도가 가장 높았다. 재학 중 직장 경험과 관련된 변수 또한 취업 탐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직장 개수 변수 역시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졸업 전후의 시기에 얼마나 직장탐색에 집중했는지가 취업 탐색자인지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했다. 직장탐색 여부는 한계적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주당 평균 소요시간이나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지원횟수가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학재학 시 직장 경험을 쌓거나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 즉 노동시장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미취업 탐색보다는 취업 탐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sup>15)16)</sup> 반면 구직활동 변수가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취업 탐색 여부가 일자리 정보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10〉 대학재학 시 그리고 졸업 전후 직장경험 및 탐색 경험 비교

(단위: %, 개, 시간, 회, 명)

		취업 탐색자	미취업 탐색자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진로, 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35.9	26.3	$\chi(1)=18.7808$ [p=0.000]
	‘직장체험활동’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 포함)	26.1	15.2	$\chi(1)=31.5852$ [p=0.000]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38.5	29.0	$\chi(1)=17.5563$ [p=0.000]
	교내 취업박람회	30.3	23.8	$\chi(1)=9.1737$ [p=0.002]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20.4	14.3	$\chi(1)=11.0700$ [p=0.001]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30.9	22.3	$\chi(1)=16.1234$ [p=0.000]
	취업캠프	13.3	8.8	$\chi(1)=8.9862$ [p=0.003]
재학 중 직장 경험	‘직장경험’ 재학 중 직장경험 여부 (아르바이트 포함)	72.6	59.1	$\chi(4)=34.6193$ [p=0.000]
	직장 개수 (개)	1.63	1.12	t=6.3455 [p=0.0000]
졸업 전후 직장 탐색	탐색 여부	67.7	63.8	$\chi(1)=3.0126$ [p=0.083]
	‘탐색시간’ 구직활동 위한 주당 평균 소요시간 (시간)	5.59	5.14	t=1.1484 [p=0.2509]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지원 횟수 (회)	11.88	13.58	t=-1.2776 [p=0.2016]
	표본 수	849	886	

- 15) <부표 3>에서는 취업 탐색자인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표 10>에 제시되어 있는 변수 중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와 관련해서는 ‘직장체험활동’을, 재학 중 직장 경험에 대해서는 ‘직장경험’을, 졸업 전후 직장탐색과 관련해서는 ‘탐색시간’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취업 탐색자 여부에 ‘직장체험활동’과 ‘직장경험’ 변수는 유의한 플러스의 값을 보이는 반면, ‘탐색시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16) 앞 장의 취업 탐색 여부가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실시 할 때, <표 10>에 제시되어 있는 직장 경험 및 탐색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추가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변수들을 추가하더라도 핵심 분석 결과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탐색노력 정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에 인적 구성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측 가능한 다양한 인적속성 변수들은 물론 대학졸업 직전 유보임금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을 더 낮춤으로써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서의 취업 확률은 더 낮았으며,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인 직장탐색이론의 모델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다.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1차 조사 시기 취업 탐색 여부가 그로부터 2년 뒤인 2차 조사 시기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기적 상황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색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대학재학 시 직장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 취업 탐색과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발견도, 청년층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청년층 취업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관련성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심화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대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유경준 편저.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pp. 407-462.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김안국.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26권 1호 (2003. 3): 23-52.
-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 오호영·김한준·김현아. 「청년층 취업 눈높이,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취업진로학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12. 6): 19-51.
- 이병희.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권 1호 (2011. 6): 71-94.
- Black, Matthew. “Pecuniary implications of on-the-job search and quit acti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2) (May 1980): 222-229.
- Blau, David M., and Robins, Philip K.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3) (June 1990): 637-655.
- Chuang, Hwei-Lin. “Job search effectiveness for employed and unemployed college graduate youth in Taiw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6 (2) (Summer 1995): 247-260.
- Gottschalk, Peter, and Maloney, Tim. “Involuntary terminations, unemployment, and job matching: A test of job search theory.”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2) (April 1985): 109-123.
- Holzer, Harry J. “Job search by employed and unemployed yout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0 (4) (July 1987): 601-611.
- Kahn, Lawrence M., and Low, Stuart A. “The relative effects of employed and unemployed job sear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4 (2) (May 1982): 234-241.



Mattila, J. Peter. "Quit behavior in the labor market."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Proceedings. Economic Statistics Section. (August 1969): 697-701.

〈부표 1〉 탐색노력 및 유보임금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탐색시간 Model (1)	지원횟수 Model (2)	LN(1차조사 유보임금) Model (3)
취업 탐색	-2.810*** (0.450)	-6.549*** (0.708)	0.048*** (0.009)
LN(유보임금)	-0.504 (1.215)	-1.278 (1.500)	0.558*** (0.026)
남자	0.105 (0.620)	2.000** (0.921)	0.040*** (0.014)
연령	-0.006 (0.155)	0.270 (0.248)	0.011*** (0.004)
일반대학 졸업	0.081 (0.627)	1.308 (0.964)	0.003 (0.013)
후기(2008년 8월) 졸업	1.951** (0.759)	1.533 (1.255)	0.001 (0.012)
주간과정	0.262 (0.799)	-1.315 (1.267)	-0.028* (0.016)
전공			
인문계열	-1.416** (0.676)	-1.926* (1.167)	0.007 (0.015)
사회계열	0.236 (0.649)	1.506 (1.202)	0.004 (0.012)
교육계열	-1.311* (0.783)	-1.573 (1.234)	0.022 (0.021)
자연계열	-0.391 (0.758)	-0.358 (1.307)	0.008 (0.015)
의약계열	-1.183 (0.975)	-1.354 (0.967)	0.040 (0.025)
예체능계열	0.502 (0.732)	-1.275 (1.064)	-0.010 (0.016)
졸업 평점	-0.709 (0.547)	-1.288 (0.784)	0.004 (0.011)
토익 성적	-0.002 (0.031)	0.114** (0.054)	0.002*** (0.001)
기혼	-0.367 (1.376)	-0.749 (2.923)	0.058 (0.036)
아버지 교육연수	-0.008 (0.078)	-0.332** (0.141)	0.002 (0.002)
관측치수	1,725	1,733	1,730
R <sup>2</sup>	0.0540	0.1176	0.5088

주 :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1차 조사 당시 거주지 시도에 대한 더미변수들, 졸업한 대학의 권역 단위 주소지에 대한 더미변수들,  
졸업 평점이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토익 성적이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아버  
지의 교육연수가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그리고 상수항이 추가되었음. 토익 성적의 단위  
는 10점.

<부표 2>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새로운 직장		전체 직장	
	취업 여부	임금	취업 여부	임금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취업 탐색	-0.191*** (0.025)	0.075*** (0.025)	0.103*** (0.021)	0.077*** (0.023)
LN(유보임금)	-0.086 (0.060)	0.225*** (0.063)	-0.025 (0.047)	0.300*** (0.057)
남자	0.078** (0.037)	0.182*** (0.039)	0.074** (0.029)	0.178*** (0.035)
연령	-0.017* (0.009)	-0.001 (0.011)	-0.008 (0.007)	-0.004 (0.010)
일반대학 졸업	0.046 (0.038)	0.098*** (0.037)	0.036 (0.031)	0.098*** (0.033)
후기(2008년 8월) 졸업	-0.063 (0.040)	0.022 (0.037)	0.019 (0.029)	0.024 (0.033)
주간과정	-0.007 (0.045)	-0.079** (0.036)	0.009 (0.037)	-0.065** (0.033)
전공				
인문계열	-0.094* (0.052)	-0.161*** (0.047)	-0.081* (0.046)	-0.131*** (0.042)
사회계열	-0.059 (0.039)	-0.057* (0.034)	-0.056* (0.033)	-0.039 (0.030)
교육계열	-0.015 (0.065)	-0.003 (0.055)	-0.047 (0.058)	0.018 (0.048)
자연계열	-0.066 (0.049)	-0.012 (0.041)	-0.056 (0.043)	-0.004 (0.035)
의약계열	0.030 (0.069)	0.090 (0.057)	0.046 (0.051)	0.085* (0.051)
예체능계열	-0.045 (0.046)	-0.102** (0.040)	-0.053 (0.041)	-0.112*** (0.037)
졸업 평점	-0.016 (0.033)	0.052* (0.027)	-0.006 (0.026)	0.059** (0.026)
토익 성적	0.002 (0.002)	0.006*** (0.002)	0.002 (0.001)	0.005*** (0.001)
기혼	-0.103** (0.041)	0.015 (0.042)	-0.036 (0.034)	0.066* (0.036)
아버지 교육연수	0.002 (0.005)	-0.002 (0.004)	0.003 (0.004)	-0.002 (0.004)
관측치수	1,400	934	1,400	1,133
R <sup>2</sup>		0.2373		0.2495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임금분석은 강건 표준오차).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Model (1)과 Model (3)은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 값임.

1차 조사 당시 거주지 시도에 대한 더미변수들, 졸업한 대학의 권역 단위 주소지에 대한 더미변수들, 졸업 평점이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토익 성적이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그리고 상수항이 추가되었음. 토익 성적의 단위는 10점.

〈부표 3〉 취업 탐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남자		여자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LN(유보임금)	0.057 (0.058)	0.067 (0.059)	0.030 (0.087)	0.049 (0.089)	0.043 (0.082)	0.048 (0.083)
남자	-0.044 (0.036)	-0.036 (0.036)				
연령	0.012 (0.009)	0.013 (0.009)	0.009 (0.014)	0.012 (0.014)	0.018 (0.013)	0.019 (0.014)
일반대학 졸업	0.040 (0.036)	0.023 (0.037)	0.031 (0.051)	0.031 (0.052)	0.034 (0.054)	0.008 (0.055)
후기(2008년 8월) 졸업	-0.032 (0.036)	-0.025 (0.037)	-0.025 (0.052)	-0.023 (0.053)	-0.064 (0.053)	-0.052 (0.053)
주간과정	-0.063 (0.044)	-0.078* (0.044)	-0.087 (0.060)	-0.097 (0.061)	-0.017 (0.068)	-0.036 (0.068)
전공						
인문계열	-0.077* (0.045)	-0.068 (0.045)	-0.120* (0.063)	-0.111* (0.064)	-0.065 (0.071)	-0.048 (0.072)
사회계열	-0.053 (0.036)	-0.047 (0.036)	-0.064 (0.046)	-0.065 (0.046)	-0.027 (0.065)	-0.009 (0.065)
교육계열	0.065 (0.063)	0.060 (0.064)	0.322*** (0.094)	0.300*** (0.099)	-0.038 (0.087)	-0.020 (0.088)
자연계열	-0.022 (0.045)	-0.019 (0.045)	0.003 (0.065)	0.008 (0.065)	-0.029 (0.072)	-0.021 (0.072)
의약계열	0.120* (0.068)	0.123* (0.069)	0.121 (0.107)	0.113 (0.109)	0.121 (0.098)	0.150 (0.097)
예체능계열	-0.034 (0.042)	-0.020 (0.043)	0.077 (0.059)	0.078 (0.060)	-0.103 (0.069)	-0.075 (0.070)
졸업 평점	0.113*** (0.032)	0.112*** (0.032)	0.081* (0.047)	0.076 (0.047)	0.138*** (0.045)	0.146*** (0.046)
토익 성적	-0.001 (0.002)	-0.001 (0.002)	0.000 (0.003)	0.000 (0.003)	-0.001 (0.002)	-0.001 (0.002)
기혼	0.005 (0.071)	0.009 (0.072)	0.254*** (0.088)	0.250*** (0.091)	-0.228** (0.096)	-0.222** (0.098)
아버지 교육연수	0.007 (0.004)	0.008* (0.004)	0.012** (0.006)	0.014** (0.006)	0.002 (0.007)	0.003 (0.007)
<직장체험 활동>		0.135*** (0.031)		0.206*** (0.047)		0.084** (0.042)
<직장경험>		0.126*** (0.026)		0.107*** (0.038)		0.140*** (0.039)
<탐색시간>		0.001 (0.002)		-0.002 (0.002)		0.004 (0.002)
관측치수	1,735	1,731	862	860	864	862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모든 Model은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 값임. 1차 조사 당시 거주지 시도에 대한 더미변수들, 졸업한 대학의 권역 단위 주소지에 대한 더미변수들, 졸업 평점이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토익 성적이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그리고 상수항이 추가되었음. 토익 성적의 단위는 10점.

---

abstract

---

## Is Job Search for the Employed More Effective than That for the Unemployed?

Kigon Nam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search efforts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between employed searchers and unemployed searchers, using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show that unemployed searchers concentrated on the job search more actively, and their reservation wage de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employed searchers. Therefore, considering only new job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was lower and the wage was higher for employed searchers than for unemployed searchers. However, both the employment probability and the wage were higher for the employed searchers, if analyzing all jobs including existing jobs of employed sear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employed search may be more effective strategy than the unemployed search.

Keywords: job search, probability of employment, reservation wage